



관덕정

2013년 12월 27일(통권 제66호)

700-832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11(남산동) 전화 : (053)254-0151

팩스 : (053)253-0666 e-mail : yi@daegusaint.com

홈페이지 : <http://www.daegusaint.com>



성탄을 축하합니다.

시 복 을 준비하는 성탄절

기획위원회
이 순 금(모니카)

한 장 남은 캘린더를 보며 서글픔이 아닌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기쁨의 성탄을 느낍니다. 나무가 살기 위해 나뭇잎을 떨어트리듯이 우린 일 년의 삶의 힘듦을 아기 예수님의 기다림으로 삶의 고통을 떨어트립니다. 볼 수 없는 하느님이 볼 수 있는 하느님으로 오시는 성탄 준비에 교회와 사회와 각자는 성탄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다시 정리할 때라고 느낍니다. 주님 탄생의 기쁨을 취함에 맞게 꾸미는 장식이 아니고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이웃이 나의 하느님이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이 각자의 마음에 임하여 풍요로운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124위 시복이 분명 이루어지는 해라 믿으며 순교자의 시복시성을 위하여 피 흘린 순교자들의 신앙정신을 되찾는 일에 모든 신자는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켜준 신앙 선조들이 성인과 복자반열에 들게 함으로써 순교자의 신앙심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것이 신앙후손들의 사명이라 봅니다.

1984년 103위 복자가 성인품에 오를 때의 감격이 30년 지난 내년에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뜻을 모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복식에 꼭 교황 성하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간청 기도를 해야 하며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조건 없이 은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는 말씀과 같이 바로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은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다할 때 국민이 대통령을 만드는 것과 같이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도 한편으로는 내가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가운데 더 잘 드러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자주 부딪혀도 알아 보지 못합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하느님은 바로 굶주리는 이웃, 감옥에 갇힌 이들입니다. 가난하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곳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든 청소년들과 젊은이와 사회복지가 만나는 것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고정관념 속에 하느님을 가두어 두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에게 눈앞에 있는 하느님을 보고 느끼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장소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의 가치관 속에 하느님을 크게 모시어 힘들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예수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신자들의 몫이고 순교자들의 후손이 해야 할 덕목입니다.

천개의 거울 속에 비치는 같은 모습을 보고 누구는 멋진 곳으로 누구는 무서운 공간으로 같은 장소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좋은 곳 무서운 곳이 됩니다.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곳 수도원과 감옥이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이 세상 삶 역시 하나의 감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감사한다면 수도원의 행복을 맛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받는 자로 만드는 사람은 더욱 아름답다" (무라카미 하루키)

제23회 성 이윤일 요한 축제에 초대합니다.

제23회 성 이윤일 요한제

선교의 꿈으로
초대합니다

9일 기도 2014. 1. 12(월) ~ 21(화)

- ① 박문수 신부(새벽) 1일 12(월) 15:00
- ② 이택 기영신 신부(새벽) 1일 13(월) 15:00
- ③ 오가백 유경 신부(새벽) 1일 14(월) 15:00
- ④ 김하중 천주교 신부(새벽) 1일 15(월) 15:00
- ⑤ 허보록 천주교 신부(새벽) 1일 16(월) 15:00

성 이윤일 요한 순교기념미사
주최: 조항길 라디오 대구교 1일 21(월) 17:00

- ⑥ 허유열 교주 신부(새벽) 1일 17(월) 15:00
- ⑦ 유익배 김기영 신부(새벽) 1일 18(월) 17:00
- ⑧ 민만희 주교 신부(새벽) 1일 19(월) 15:00
- ⑨ 노승희 대주교 신부(새벽) 1일 20(월) 15:00

관덕정순교기념관 053) 254-0151 www.daegusaint.com

교구 제2주보이신 이윤일 요한 성인의 순교일(1월21일)을 기념하는 윤일제가 스물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선교의 꿈"이란 주제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 신부님들의 초청 강연 미사로 준비하였습니다. 박해시대 때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순교하신 선교사 신부님들이 계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오시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사시는 선교사 신부님들의 삶과 신앙을 교우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I. 성 이윤일 요한제를 위한 9일기도 미사와 특별강론

일 시 : 2014년 1월 12일(일) ~ 20일(월)

장 소 : 관덕정순교기념관

일 정

날 짜	시 간	미 사 주 례	기도지향
12일(일)	15:00	박문수 F.하비에르 신부님 (예수회)	사 랑
13일(월)	15:00	야렉 카미엔스키 신부님 (천주교 사도직회)	기쁨
14일(화)	15:00	오기백 다니엘 신부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 화
15일(수)	15:00	김하중 빈첸시오 신부님 (오블라띠 선교수도회)	인 내
16일(목)	15:00	허보록 필립보 신부님 (파리외방전교회)	친 절
17일(금)	15:00	하유설 요셉 신부님 (메리놀외방전교회)	선 행
18일(토)	17:00	유익배 알로이시오 신부님 (작은형제회)	진 실
19일(일)	15:00	인만희 마누엘 신부님 (글라렛 선교수도회)	온 유
20일(월)	15:00	노송피 로베르토 신부님 (살레시오회)	절 제

II. 성 이윤일 요한 순교기념미사

일 시 : 2014년 1월 21일(화) 오후 5시

주례 -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장 소 : 관덕정순교기념관

나를 만나게 해준 천진암 순례

월성성당
손 헌 숙(루치나)

우리 브레시디움에서는 단원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성지 순례를 하고 있다. 순례는 승용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본당 각 단체 주관 순례 및 공지가 되는 순례에 참가 하면서 聖祖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관덕정 성지 순례 공지를 보고 "따르릉" 신청 벨을 울렸으나 계속되는 통화 중 신호 음에 오전 미사 참례를 마치고 다시 재 통화를 시도했더니

"네, 관덕정입니다." 라는 통화음이 반갑게 들려왔다.

"네, 네, 네"

"천진암 성지 순례에 참가하고 싶은데요"

"네, 한 자리 남았습니다"

"3명 신청하고 싶은데 어찌죠?"

"그럼 봉고도 괜찮으시다면 ……." "네, 참가하고 싶습니다."

성지 순례를 함께할 수 있는 안도감에 기쁨은 두 배,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3주를 기다렸다. 늘 성지 순례를 떠나는 아침은 설렘으로 새벽잠을 설치지만 유난히 더웠던 울여름을 지내고 떠나는 순례라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선잠 깬 도마 소리도 명쾌하게 들렸다. 관덕정에서 가는 순례는 처음인지라 조금 서둘러 관덕정에 도착했지만 벌써 많은 분이 나와 계셨다.

9월 15일 이른 아침, 우리 단원들과 함께 미리 배정받은 15인승 미니버스에 탑승하여 아침기도, 삼종 기도로 주님께 순례 여정을 말씀드리고 "봉~~" 천진암 성지로 출발했다.

천진암 성지가 가까워지면서 계곡의 물소리는 더 요란스러웠고 풍광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聖祖님들께서는 자연 그 '然'에서 천주님을 만나셨구나!' 하는 생각에 성지로 가는 길 마저도 성스러움을 느꼈다.

오전 10시 40분경에 성지에 도착해서 버스에 내려 보니 멀리 가까이 산들이 성지를 감싸고 있었다.

간단히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광암 성당에서 1시간 동안 한국 천주교 발상지인 천진암 성지에 대한 설명과 이벽 성조님의 일대기 그리고 강학의 의미, 이벽 성조님의 천학 핵심 부분을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 듣고 미사 참석 후 맛난 점심 식사를 하고 박물관으로 향했다. 박물관 가는 길에 만난 평화의 성모님은 키가 15m에 25톤 하얀 청동 옷을 입고 계셨다. 아름다운 성모님 옆에서 기념 촬영도 하고 성모님께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기도도 드렸다.

박물관은 아직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해 유물들은 전시되어 있지 않고 사진과 유물 전시 장소만 지정해 놓은 상태였다.

버스를 타고 이벽, 이승훈, 권일신, 권철신, 정약용, 5위 한국 천주교회 창립 선조들의 묘를 참배하고 '李檠聖祖讀書處地'을 둘러보면서 신부님께서 '天真菴 講學堂地' 등 곳곳 유적지에 대해 상세히 해설해 주셔서 선조님들의 사상과 유적지 유래, 聖地가 조성되기까지의 어려움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신부님께서 낭독해 주신 '예수님께서 보내온 편지'란 제목의 메시지에서 많은 묵상 거리를 찾았다.

성 정하상 묘지 참배를 마지막으로 순례의 여정은 끝이 났다.

미니버스에 올라 묵주기도 20단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칠곡 휴게소까지 조용히 묵상에 들어갔다. 항상 순례 前에 인터넷으로 순례지를 둘러보고 순례에 나서도 놓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천진암 성지 순례에는 성지 신부님이 1시간에 걸쳐 한국 천주교 발생지인 천진암과 성지 곳곳 내력을 해설해 주셨고, 한국 천주교회 창립 주역이신

이벽 성조님의 일대기와 학문, 종교적 신앙을 영상을 통해 보면서 천진암 성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천진암 성지는 한국 천주교회 창립 주역이신 이벽 성조님께서 약 15년간 학업과 수도에 전념하던 독서처, 천학도장이 있었고, 1777년부터는 이승훈, 정약전, 정약종, 권상학 등 젊은 선비들과 함께 천학(天學)을 함께 실천하였으며, 교리연구 실천 강학회가 개최되어 학문적 수준에 있던 천학을 종교적 신앙차원으로 승화시켜, 천주교 기도와 음력 주일 제정, 실천 등 천주교 신앙 실천의 도장(道場)이 있던 곳이라 한다. 신부님의 설명과 영상을 통해 접한 강학의 심오한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강의 듣는 동안 천지는 하느님으로부터 아니 창조주이신 주님의 것이며, 인간은 靈(=주님)으로부터 숨 쉬고 살찌워짐을 다시 재확인했다.

내 영혼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칠극을 하나, 둘 짚어 보았다.

克己란 이 말을 평소에 좋아한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克己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분신 같은 말이라 七克의 克이 낯설지는 않았다.

칠극 중 겸손과 너그러움, 인내는 가톨릭 신자라면 늘 달고 다니는 것이라 마음에 저장해놓고 넣었다 버렸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식탐과 게으름에 대해서는 죄의식도 낮고 아예 克 밖에서 서성임을 깨닫고 묵상했다.

이번 순례에서 聖祖님으로부터 그리고 신부님으로부터 받은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란 질문에 대해 묵상해 보았다.

불행에 대한 두려움, 행복에 대한 욕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익숙해진 기도였다.

그러나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는가? 부끄러움은 없었는가!

오늘 묵상의 끝자락에서 "그래" 하루를 즐겁게 감사하며 살다가 그 하루를, 차곡차곡 모아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저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졌다.

눈을 떠 보니 칠곡 휴게소다.

신부님께서 오늘의 순례를 마무리하시면서 순례 여정의 소감을 물으셨다.

미니버스에 탑승한 우리는 왕복 7~8시간 동안 각자 자유롭게 묵상을 하면서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피정 때도 만날 수 없었던 7여 시간의 침묵의 묵상은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으며, 천진암 성지 순례는 현재 살고 있는 나를 만나게 해준 뜻깊은 순례였다. 잘 계획된 순례 여정을 선물해 주신 신부님과 관덕정 봉사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존재

복자성당

김 은 희(아나스타시아)

모두에게는 그런 존재가 있다.
'어머니'라는 존재

나의 어머니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던 존재

나의 어머니
내가 '응애'하던 그 순간부터
항상 힘이 되주던 존재

우리의 어머니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을 해도
한결같이 내 편이 되주던 존재

우리의 어머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한결같이 하던 일을 멈추고 와주던 존재

모두의 어머니
모두를 위해 날이 새도록
그 분께 기도해주시는 존재

시간이 흐른 뒤에야
감사함을 알게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있어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안득수 지음

가톨릭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가톨릭을 소개하면서도 감동을 주고, 재미까지 있는 책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는 초등학교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우면서도, 어느 사이 그 속에 깊이 빠져들게 하는 재미있는 일화들로 채워져 있으며, 또 가슴이 뜨거워져 함께 눈시울을 붉히는 감동을 안겨주는 책이다. 그래서 한 번 잡으면 끝까지 읽게 하는 것은 저자 안득수 박사의 삶과 신앙을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성삼위 하느님을 알게 해주는 진정성 있는 신앙체험기이기 때문이다.



국립대학교 부속병원 병원장이 될 때까지 그저 평범한 신앙인이자 의사였던 저자는 하루 아침에 병원장이 되면서 성경을 그저 좋은 책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말씀이 생생히 살아 움직이면서 쑥쑥 굴러 들어오는 체험을 하게 된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실험과 통계로 입증하고, 수천수만 번 되풀이된 경험을 차곡차곡 정리한 의학에 기초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학도인 그에게 종이에 인쇄된 성경 속 글자가 왜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지 근거를 대며 설명해보라면 속수무책 설명할 길이 없을 터이지만 그때의 그 떨림과 움직임이 너무도 생생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것이다. 마치 파스칼이 요한복음 17장을 읽다가 너무도 강렬한 성령체험을 하고 신앙고백문을 쓰지 않을 수 없었듯이 그의 성령 안에서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병원장이 된 후 처음 맞이한 주일의 독서 이사야서를 그의 좌우명으로 삼는 모습에서, 또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저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성지 개발과 보존에도 앞장서온 저자는 성지에 하느님의 특별한 기적이 작용함을 체험으로 고백한다.

명랑운동회 열어

10월 3일(목)
꾸르실료 교육
관에서 명랑운
동회가 열렸다.
관덕정 제위원
회와 단체에 소



속된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기자랑과 게임을 통해 서로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였다. 이날 운동회는 미사봉헌으로 시작되었으며 천지창조팀과 최후만찬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했다. 운동회 우승은 최후만찬팀으로 돌아갔으며 장기자랑 최우수상은 기획위원회가 차지했다.



국내 성지 순례 소식

10월 20일(일) 관장신부님을 포함한 59명의 순례자가 용소막성당을 순례했다. 그곳 성모영보 수녀회 수녀님의 안내로 선종완 신부님 삶의 자취를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묘재와 학산공소도 순례하였다.

11월 17일(일)에는 죽산성지순례가 있었다. 그곳 성당에서 관덕정 순례자와 서울에서 순례 온 자양동 교우들이 함께 미사를 봉헌했다. 오후에는 십자가의 길을 바치고 묵상시간을 가졌다.



용소막성당순례



죽산성지순례

교회사 강좌는 계속 이어져

10월 5일(토) 기획위원회 박철수(보니파시오) 위원이 "기해박해와 하느님의 종" 순교행적에 관하여, 11월 2일(토)에는 성지순례위원회 임일량(시몬) 위원이 "병인박해와 하느님의 종" 순교행적에 관해 강의했다.



박철수(보니파시오)



임일량(시몬)

대림영성특강

12월 7일(토) 작은형제회 김찬선(레오나르도) 신부님께서 대림 특강을 해주셨다. '일상의 대림'이라는 주제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잘 맞이할까하는 이야기를 신부님의 하느님 체험과 함께 들려주셨다. 계시는 듯 안 계시는 듯, 오시는 듯 안 오시는 듯 우리에게 오시는 하느님을 뵈도록 일상 안에서 우리 영적 감수성이 예민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욕심과 근심을 비우고 빈 구유가 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김찬선(레오나르도) 신부님

☆ 안내 ☆

2014년 1월 4일(토) 특강은 관덕정순교기념관을 설계한 김영태(바오로) 前영남대학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22일부터 2013년 12월 21일 기간 안에 후원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평생 회원

故강성탁	故김광운	故김금순	故김도선	故김선이	故김여선	故김영주	故김옥수
故김외생	故김인섭	故김재용	故김춘자	故권오술	故나술임	故도무환	故박금영
故박묘근	故변월분	故배봉화	故손도분	故손석조	故손영일	故손원하	故손희근
故양단주	故유상열	故윤철천	故이명우	故이봉균	故이상규	故이정순	故이종하
故이학용	故임달수	故전우린	故조무출	故최시영	故최용조	故최윤식	故최재규
故최주열	강순남	강종구	김도희	김명한	김복선	김소생	김연옥
김정강	김지완	김춘자	김현우	노재봉	박도미	박득춘	박영완
박형숙	변은심	배난화	손명순	손순란	송득규	송용형	시정숙
신덕남	윤필순	이경옥	이권분	이두환	이명미	이성진	이세일
이순계	이정옥	장경수	장순연	장정자	장화순	정경희	정신자
정정자	조영명	최영희					

가족 회원

강주선가족	금 찬가족	금 훈가족	김복자가족	김석권가족	김순돌가족
김영숙가족	김영희가족	김용태가족	김재홍가족	김정강가족	김정현가족
김정환가족	김종업가족	김종운가족	김종호가족	김차중가족	김필여가족
길창호가족	권기진가족	권미정가족	권영환가족	권오분가족	노 옥가족
노재희가족	류진춘가족	박경진가족	박기석가족	박민호가족	박영자가족
박용희가족	박원석가족	박재석신부가족	박준철가족	박천순가족	박화수가족
배정경가족	서난향가족	서성교가족	서영희가족	손동진가족	손춘자가족
손효식가족	송재규가족	신수영가족	신정향가족	신혜성가족	양재명가족
여운욱가족	윤성민가족	윤영호가족	윤정순가족	윤종문가족	윤현경가족
이길자가족	이명미가족	이백산가족	이상욱가족	이선욱가족	이수자가족
이양우가족	이준호가족	이창수가족	이창호가족	이태연가족	이태호가족
이호생가족	이화선가족	임말례가족	전정숙가족	정경자가족	정명숙가족
정화숙가족	조정자가족	최경식가족	최광남가족	홍수종가족	홍태숙가족
황수진가족	황원희가족				

일반 회원

강승모 구이분 김경달 김순자 김영옥 김영진 김우순 김원기 김위식 김점수
 김지혜 김춘자 김혜숙 류현정 박길락 박대민 박덕향 박영옥 박옥경 박용일
 박용택 박유순 백영진 송재화 신만우 안지윤 유승우 윤민선 윤용석 윤지선
 윤현선 윤현수 윤홍성 이경희 이윤홍 이정옥 이종순 이현숙 이호자 임태건
 장정규 전기엽 전화선 제현희 채태수 최순덕 최원진 홍명연 황성희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

관덕정에서는 순교자현양사업과 순교 신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 현양 운동과 각종 유물의 발굴, 조사, 연구, 전시, 보관하기 위한 노력에 후원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방법

-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 053)254-0151번이나 0159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성함과 세례명, 본당과 주소지,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방문하셔도 됩니다.
- 관덕정순교기념관을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평생회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서류가 필요치 않으며, 명함판 사진(없으시다면 얼굴이 잘 나온 일반 사진도 가능) 2매를 준비 해 오시면 됩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회원님께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후원회원들을 위한 생미사와 세상을 떠난 평생회원들을 위한 위령미사가 함께 봉헌됩니다. 망자가 되신 분을 평생회원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이외에 평일미사에 위령미사를 3대 봉헌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께 순교자 현양 및 신심운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덕정순교기념관의 소식이 담긴 회보를 3개월마다 보내드립니다. 순교기념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연말 세금공제를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금 납입방법

- 납부계좌 : 대구은행 006-10-011249 (예금주 : 대구관덕정순교기념관)
 - ※ 회비를 송금해 주시는 분들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송금 후 꼭 사무실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자동이체 : 거래하시는 은행에 거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저희 대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 ※ **자동이체 신청 후에도 사무실로 꼭 연락주십시오.**
 - ※ 자동이체 신청시 일반회원 : 월 2,000원
 가족회원 : 월 5,000원

■ 후원회비

- 일반회원 : 연 20,000원
- 가족회원 : 연 50,000원
- 평생회원 : 연회비 없이 일백만원 이상을 기탁

- 관덕정 미사안내 -

- 화요일 : 오전 10시
- 금요일 : 오후 3시(순교자현양미사)
- 토요일 : 오후 5시(특전미사)

※ 첫째 주 토요일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